

# 광주시립미술관 새 작품 보러 오세요

내달 16일까지 '신소장품 2016'전

구입·기증... 지난해 243점 수집  
다양한 장르·구입 작가 세대 균형  
각 분야 대표작 44점 선정 전시  
오승우·김영중·신철 작품 눈길



오승우 작 '한라산'

미술관의 정체성은 전시 기획과 함께 소장품에서 나온다. 지난해 시립미술관은 어떤 작품을 수집했을까.

지역 미술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신소장품 2016'전이 4월 16일까지 본관 3·4전시실에서 열린다. 지난해 미술관은 일반 33점, 청년작가공모 11점, 광주국제아트페어 46점, 기증작품 153점 등 총 243점을 수집했다. 소장품을 살펴보면 시립미술관은 지자체가 세운 최초 공립미술관의 역할에 중점을 뒀다. 민주·인권·평화로 대변되는 광주 정신에 부합하는 평면·입체·미디어아트 등 다양한 장르가 엮여 있다. 또 청년부터 원로, 작고작가까지 전세대에 걸쳐 균형감을 줬다.

이번 전시에서는 각 분야 대표 작품을 선별해 44점을 선보인다. 전시되지 못한 작품은 도록에 수록될 예정이다.

전시실은 크게 4개 공간으로 구성된다. 도입부에서는 지역미술사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작고·원로 작가 작품을 설치했다.

1992년작 '한라산'은 지난해 '대한민국 명품전'에 참여했던 오승우 화백이 스스로 최대 역작으로 꼽는 한국 100산 시리즈 중 대표작품이다. 장성 출신으로 천안 독립기념관 '불굴의 한국인'상을 제작한 고(故) 김영중 작가의 작품도 만날 수 있다. 전시 출품작 '다들여진 여인'(1999)은 대리석을 재료로 인체의 형상을 선과 면으로 단순하게 제작한 작품이다.

두번째 공간은 오늘날 지역화단 현주소를 보여주는 중견작가 작품으로 꾸며졌다.

김해성 작가의 '아간비행'(2015)은 꽃, 새, 나비, 달, 별, 구름 등 자연적인 소재들과 천진난만한 어린이들이 주인공이다. 검은색 배경은 현실을 의미하지만 수많은 꿈을 펼칠 수 있는 세상으로 새롭게 해석했다.

손영환 작가는 디자인 분야와 순수미술분야에서 폭넓게 활동하고 있다. 작품 'Chaosmos-2013'(2016)은 골판지에 UV프린팅, 아크릴을 사용한 실험적 작품이다. 혼돈과 질서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우주를 신비로운 색채로 표현했다.

또 신철 작가의 '기억풀이-조우'는 초등학교 친구들이 어른이 돼 다시 만나는 장면을 담아 따뜻하면서도 외로운 현대인의 일상을 보여준다.

세번째 공간은 민주·인권·평화 정신을 표현하는 현실참여적 작품을 전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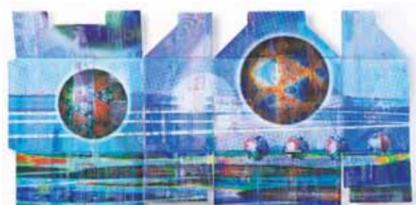
이상호 작가의 '통일염원도'(2014)는 80년대 걸개 그림 형식으로, 남한을 상징하는 어머니와 북한을 상징하는 아들이 땀줄로 이어져 있는 모습을 담았다.

국외작가 작품도 선보인다. 지난해 인권평화전에 참여했던 필리핀 출신 레나토 아블란의 'En-wrapped'(2015)은 전에 덮인 죽은 사람이 소재다. 필리핀 전통문양이 들어간 천은 서구화된 정신을 가진 필리핀 사람에 대한 비판이다.

그밖에 마지막 공간에서는 지역미술계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작가들의 참신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최요안 작가의 '이 땅에 살기 위하여'(2008)는 광화문 광장 촛불집회를 소재로 민중의 열망과 힘을 형상화했다. 문의 062-613-7140.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손영환 작 'Chaosmos-2013'



김해성 작 '아간 비행'

# '난원 정향자 사경전' <寫經>

17일까지 빛고을건강타운

한국전통사경 맥을 잇고 있는 정향자 작가가 오는 17일까지 광주시 남구 빛고을노인건강타운 내 임소윤갤러리에서 '난원 정향자 사경전'을 연다. 사경(寫經)은 종교 경전을 베껴 쓰고, 내용을 삽화 형식으로 그린 작품으로, 불교 수행법 중 하나다.

정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무구정광대다라니경', '여래심대발원문', '관세음보살보문품과 관세음보살' 등 감지(紺紙·검은 종이)에 금니(金泥·아교에 개인 금박 가루)로 쓴 경전을 선보인다.

작품 속에는 경전 내용이 금색으로 빼곡히 들어가 장엄하면서도 화려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특히 '공작명왕', '길상천녀', '불정삼다라니경' 등은 금빛으로 탕화를 새롭게 표현한 점이 특징이다. 가로85cm·세로 56cm 크기 '묘법연화경전제일변상'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등

수많은 보살들을 세밀하게 표현했으며 테두리는 불교 문양을 넣어 작품 제작에 쏟은 정성이 엿보인다.

또 불교뿐 아니라 기독교 성경사경과 '주기도문', '오병이어' 작품도 출품해 종교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정 작가는 "제2의 인생을 사시는 분들에겐 잘 알려지지 않는 전통문화 사경을 보여드리며 보는 즐거움과 함께 제작 교육도 제공할 예정이다"며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현대 물질문명에서 사경은 그림의 예술로서 정서적인 안정을 준다"고 소개했다.

정씨는 호남대 대학원 미술학과에서 석사를 전공하고 원광대 대학원에서 회화문화재보존수석박사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8년부터 서울, 광주 등에서 개인전을 열며 전통 사경을 소개하고 있으며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 특선을 수상했다. 문의 062-603-8945.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연화비천도

## 목포 어린이해양문화체험관 신안선 주제 새단장

목포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가 '신안선 이야기'를 주제로 어린이해양문화체험관을 새롭게 단장하고 공개한다.

어린이해양문화체험관은 '신안선 발굴 40주년'을 기념해 중국 원나라 무역선 '신안선'의 출항준비와 항해, 침몰, 발굴과 복원 과정을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보여준다.

구체적으로는 '신안선 출항지 중국 닝보(寧波)항의 모습', '신안선의 항해 체험', '유물의 발굴과 복원', '항해 도구의 체험' 등 4부로 구성됐다. 특히 4차원 가

상현실(4D VR) 애니메이션 '신안선 이야기'는 360도로 회전되는 영상화면을 통해 침몰과 발견, 발굴과정을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다.

한편, 신안선은 1976년부터 1984년까지의 발굴 조사를 하고 다시 20년간 선체 보존·복원처리 과정을 거친 후 2004년부터 연구소 신안선실에서 전시되고 있다.

중국 무역도자기 2만4000여 점을 비롯해 동전 28문, 자판록 1000여 개가 실려 있는 동아시아 최대 무역선이다. 문의 061-270-2043. /김용희기자 kimyh@



## 광주민족미술인협회 신임 회장에 김정환 작가

김정환 작가가 (사)광주민족미술인협회(이하 민미협) 신임회장에 선출됐다. 민미협은 최근 제10차 정기총회를 열고 김정환 회원을 만장일치로 제6대 회장으로 뽑았다. 김 신임회장은 "현 정권에서 지행한 블랙리스

트 때문에 많은 진보미술인들이 매우 힘든 시절을 맞았다"며 "그럼에도 광주민미협 회원들은 광장과 전시장을 오가며 4·16세월호 참사 등 폐된 진실 앞에서 내일의 희망을 위해 현실참여적 미술활동을 꾸준히 펼쳐 감사 드린다"고 소

감을 말했다. 또 "앞으로 활동에 보다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함과 동시에 미술인들의 권익보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조선대 미술대학·대학원을 졸업한 김 회장은 현재 파우조형환경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으며 광주 통일미술제(1995), 2004년 제5회 광주비엔날레 특별전(현장3) 등에 참여했다. /김용희기자 kimyh@

**M갤러리 대관안내**

- ▶ 기본대관기간 : 7일(일주일 단위)
- ▶ 실 전시 벽면 길이 : 약 46 M
- ▶ 개관시간 : (평일) 09:00~18:00 (토일) 10:00~17:00
- ▶ 신청방법 및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http://jinhan-shona.blog.me>

**아프리카 쇼나조각 앙코르전시회**

500여점 전시

세계 조각·장식 박물관 (062) 222-0072, 226-5800 (구, 카톨릭센터 뒤 광명전 18)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국 제 보 청 기**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자연이 아름답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더 아름답습니다. 백양관광호텔로 오십시오.

**Beautiful Baeg Yang Hotel**

백양사 입구 **백양관광호텔**  
Beautiful Baeg Yang Hotel

- 정원과 테라스가 아름다운 호텔
- 실내 결혼식장과 야외 결혼식장을 갖춘 호텔
- 출장 뷔페 전문 호텔 = 호텔외식사업부
- 교회 행사 전문 호텔

자연과 인간 그리고 예술의 만남

- 대형 웨딩홀 준공
- 400석 대면회장 신축
  - 대규모 기업행사(세미나/워크숍/기업연수)
  - 결혼식/피로연/고화연
  - 각종 모임(가족모임/동창모임/각종단체모임 등)
- 전객실을 편백으로 리모델링한 호텔

http://www.baegyanghotel.co.kr/ 백양관광호텔 |예약 및 문의| 061-392-2114